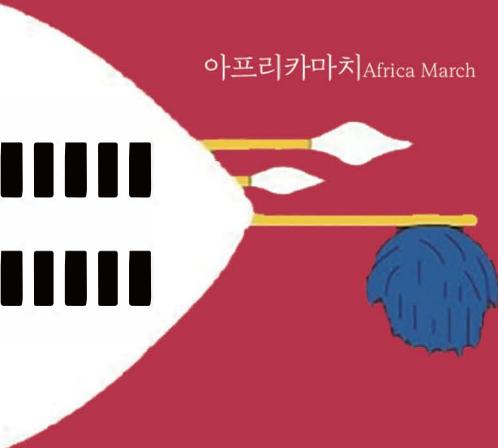


에스와티니,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



아프리카마치 Africa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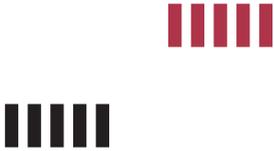


AFRICA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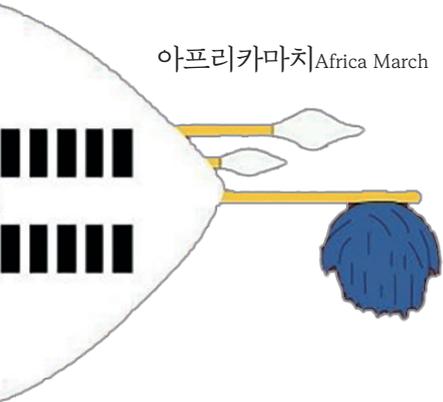
에
스
와
티
니,
우
리
가
모
르
는
아
프
리
카

에스 와티니,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



아프리카마치 Africa March



아프리카는 54개의 크고 작은 나라들(UN 기준)로 구성된 광대한 대륙입니다. 그곳에는 섬들이 모여 있는 작은 나라도 있고 광활한 사막을 뿔내는 나라도 있죠. ‘Africa March’가 두 번째 국가로 선보이는 나라는 ‘에스와티니’입니다. 여러분에게 낯설게 느껴질 이 나라 이름은 2018년도까지만 해도 ‘스와질랜드’였습니다. 해외 뉴스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스와질랜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동부에 위치한 내륙국 에스와티니는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기도, 즉 수도권 면적에 지나지 않는 매우 작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여러 기후를 갖고 있는 나라 안에서 다채로운 동식물을 볼 수 있으며, 사과리로도 유명합니다. 또한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 유일의 전제군주 국가이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대체적으로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매우 인

기 있는 부쉬파이어라는 음악축제와 국내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된 갈대 축제가 이곳에서 열리고 있지요.

『에스와티니, 우리가 모르는 아프리카』는 전편인 『카보베르데, 당신이 모르는 아프리카』에서 느꼈던 파도 소리와 모르나 음악의 애상적이면서도 때로는 경쾌한, 그래서 일상을 벗어난 듯한 분위기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다소 무거운 주제를 통해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죠. 필자들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틈틈이 짬을 내어 책의 분위기와 지향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저희는 에스와티니를 보고 느낀 그대로의 생각을 덩뎅하게 적어보려고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선입견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에스와티니를 ‘스스로’ 알아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필자들이 에스와티니에 대한 각자의 관심과 시선을 바탕으로 쓴 글들을 엮었습니다. 스와질랜드에서 에스와티니로 국명을 변경한 사건에서 정체성을 고민하기도 하고, 스와질랜드 여행을 통해 겪은 생생한 체험과 단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우리의 무당과 비슷한 에스와티니의 상고마가 현대의 매체를 잘 이용하여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실을 전하기도 합니다.

에스와티니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특징인 왕국의 역사를 고찰하기도 하고, 나아가 필자 스스로가 왕족이 된 것처럼 상상하며 그들의 일기를 써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심과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한 에스와티니를 독자 여러분에게 선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타자에 대해 갖고 있던 태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타자를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 책의 집필 목적을 달성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여름에, 독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차례 I

머리글	4
너의 이름은? 정체성에 관한 단상	8
길 위의 스와질랜드	21
/ 잠시 쉬어가기 /	50
어제와 오늘, 일상 속 상고마	51
21세기의 전제군주 - 역사적 배경과 현재	73
에스와의티니 왕실 사람들과 그들을 엿보는 우리에게 관하여	90
/ 잠시 쉬어가기 /	118
부록	119
참고문헌	123

너의 이름은? 정체성에 관한 단상

“

스와질랜드 헌법 제64조 제3항에 의해 내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나, 음스와티 3세 국왕은 스와질랜드 왕국의 이름이 에스와티니 왕국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한다.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on me by section 64 (3) of the Constitution of Swaziland Act No. 1 of 2005, I, Mswati III, King and Ingwenyama of eSwatini makes the declaration that the name of the Kingdom of Swaziland is changed to Kingdom of eSwatini.)

”

김심심

19살에 케냐에서 나미비아까지 아프리카 7개국을 배낭여행한 이후, 아프리카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나름대로 늘어나는 경험치에 비해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는 점점 젼병이 되어 고민이다.

시선과 권력, 그 한 곳 차이

에스와티니는 아직도 스와질랜드Swaziland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국가입니다. 2018년 4월 18일 스와지 독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음스와티 3세Mswati III는 국명을 스와질랜드에서 에스와티니 왕국Kingdom of eSwatini으로 변경할 것을 천명했지요.

오늘날 세계에서 국명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음스와티 3세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음스와티 3세는 아프리카에 마지막 남은 전제군주입니다. 사실, 전제군주라고 하면 먼 옛날에나 있을 법한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지요. 웹툰이나 드라마를 많이 보는 젊은 세대들은 절대군주제를 작금의 현실과 동떨어진 가상의 세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전제군주, 절대왕정이라고 하면 그 옛날 프랑스의 부르봉Bourbon 왕조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절대군주의 위엄을 자랑하는 베르사유 궁전이나 호화로운 문화와 특권을 탐닉하는 왕족과 귀족들이 떠오르는 동시에, 이를 타도한 시민혁명인 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도 떠오르지요. 그래서일까요?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배우며 자란 저로서는 절대왕정 또는 전제군주가 시민사회에 의해 타도되었어야만 할, 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있거나 민주주의 이전 단

계의 덜 성숙한 사회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와티니로 국명 변경과 관련된 외신과 여러 종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이 ‘독재자’와 다름없는 어느 작은 나라의 전제군주가 본인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국명을 바꾼 것처럼 이 사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국명을 변경한 이유인 ‘정체성 확립’보다 ‘스위스와 국명이 헛갈린다!’와 같은 주의를 끌 만한 자극적인 내용을 부각하기도 하고요. 국내 언론과 블로그 대다수도 “스위스와 국명 헛갈려”를 제목으로 쓰거나 마치 독재자 국왕이 국명을 바꾸라고 명령한 것처럼 이 사실을 다뤘습니다. “스위스와 국명 헛갈려서”라는 이유는 음스와티 3세가 실제 한 말이기는 하지만, 한 국가가 국명을 변경한 중차대한 사안을 심도 있게 다루려는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음스와티 3세가 스와질랜드를 에스와티니로 국명을 바꿨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제게도 에스와티니는 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상에 스와질랜드를 ‘에스와티니(구 스와질랜드)’로 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더 컸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호기심을 갖기보다는 귀찮음이 더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관련 외신과 기사를 보

면서도 국명을 바꾼 것에 대해 공감을 하거나 고민을 하기보다는 ‘전제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말았지요. 저부터도 전제군주, 왕이라 가능했을 것이라는 편견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이러한 표피적 현상에 눈이 멀어 본질적인 의미를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안을 피상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취급해 온 저 자신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림 1. Naver 뉴스 검색 결과

Lesser-known facts about Swaziland

- Africa's last remaining absolute monarchy
- A landlocked country, smaller than the US state of New Jersey
- King Mswati III currently has 15 wives; his predecessor had 125
- Has the world's highest prevalence rate for HIV/AIDS
- Low life expectancy with 54 years for men, 60 for women

그림 2. BBC 기사 중 '스와질랜드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

제가 에스와티니 국명 변경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가장 먼저 눈이 갔던 곳은 아무래도 BBC 기사였습니다. BBC는 이름 자체만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담보하지요. BBC는 에스와티니로 국명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스와질랜드에 대해 잘 알려지

지 않은 사실들’이라는 소제목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사실들’을 친절하게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스와의 3세에게는 열다섯 명의 부인이 있고, 선왕 소부자 2세 Sobhuza II는 무려 백스물다섯 명의 부인을 두었다, 에스와의니는 기대수명이 낮은 국가로 남자의 기대수명은 54세, 여자는 60세다... 등등요. 이런 친절함은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통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기사나 블로그에도 BBC의 ‘친절한’ 설명을 인용한 글들이 몇몇 보이네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실 중에서도 어떤 사실을 취할 것인가, 그 사실을 어떤 순서로 나열하고 어떤 뉘앙스로 제시할 것인가는 개인의 선입견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BBC는 마치 음스와의 3세가 사건을 공식 석상에서 갑자기 선포한 듯이 에스와의니로의 국명 변경이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 국명 변경보다 침체된 경제 현안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사들의 비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굳히기 한 문장! 그동안 스와질랜드의 지도층은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여성을 차별해서 인권운동가들의 비난을 받아왔다고 지적합니다.¹⁾ 물론 이

1) BBC, "Swaziland king renames country 'the Kingdom of eSwatini'", 19 Apr 2018,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43821512>